

오늘·내일 광주 염주체육관 'V-리그 탑매치'

한·일 배구 챔프 '맞짱'

홍국생명·GS칼텍스
‘8전 전패’ 설욕 벼러

한국·일본 여자프로배구의 최강을 가리는 홍국금융가족배 2009 한·일 V-리그 탑매치가 오늘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챔피언 홍국생명·2위 GS칼텍스와 일본 텁파인 토레이(아로즈·2위 히사미즈 스프링스)가 맞붙는다.

자국팀간 경기 없이 2경기씩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18일 오후 2시 홍국생명과 히사미즈가 첫 경기를, 이어 오후 4시에 GS칼텍스와 토레이가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19일엔 GS칼텍스와 히사미즈(오후 1시), 홍국생명과 토레이(오후 3시)전이 열린다. 이 대회 순위는 승점·점수득실률·세트득실률 순서로 결정된다.

홍국생명과 GS칼텍스는 2006년, 2007년 두 차례 대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8전8패의 수모를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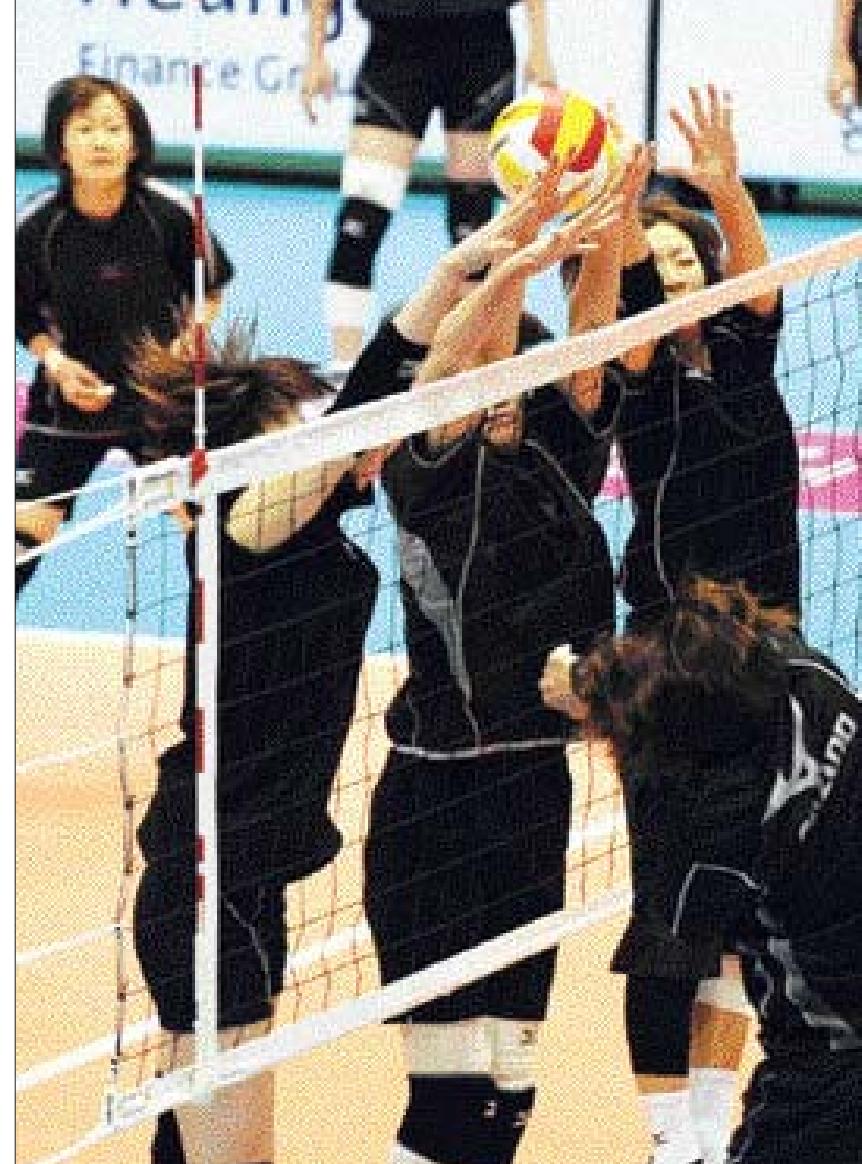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첫 정상을 노리는 홍국생명은 국내 여자프로배구 최고의 스타 김연경과 융병 카리나가 ‘쌍포’로 포진, 매서운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규리그 1위 GS칼텍스도 융병데라크루즈와 정태영을 앞세워 우승을 향한 총력전을 펼칠 태세이다.

일본 2위팀으로 출전한 히사미즈는 2006년, 2007년 탑매치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일본 1위 토레이는 일본 V-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히사미즈를 3-0으로 꺾고 이 대회 첫 출전의 행운을 안았다.

일본 토레이는 일본 여자프로배구 2007~2008 시즌 우승팀으로 지난 2000년 프로팀으로 창단했다. 그동안 중하위권을 맴돌던 토레이는 지난 1964년 아마추어 팀으로 출발해 1965년 전일본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1990년까지 아마추어에서 총 21번 우승을 차지했다. 칸노 코이치로 감독 등 코치진 3명과 아



홍국금융가족배 한·일 V-리그 탑매치에 출전한 일본 대표팀 히사미즈 스프링스가 본 경기(18일)를 앞둔 17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연습 경기로 몸을 풀고 있다.

/위즈랑기자 jrw@kwangju.co.kr

기 시바타 등 18명의 선수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히사미즈는 1948년 창단된 역사 깊은 배구팀으로 1994년 일본 여자프로배구 리그 발족 때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2007~2008 시즌에는 3위에 그쳤으나, 매년 우승과 준우승 등 상위권을 유지한 강팀이며 모두 8차례 우승했다. 마나베 마사요시 감독 등 5명의 코치진과 20명의 선수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4개 경기는 KBSN TV에서 생중계 한다.

한편 남자부 경기는 한국·챔피언 삼성화재와 2위 현대캐피탈이 일본 키티큐슈 시 시립종합체육관에서 일본 텁파인 토레이와 2위 사카이팀과 각각 경기를 갖게 된다.

대회 상금은 우승 2만달러, 준우승 1만달러, MVP 3천달러, MIP 2천달러가 주어진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新지존’ 서희경 시즌 첫 우승

롯데마트오픈…위성미 36위 그쳐

서희경(23·하이트)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1인자의 자리를 다져나갔다.

서희경은 17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골프장(파72·6천330야드)에서 열린 MBC 투어 롯데마트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쓰러드는 깔끔한 플레이로 함께 6언더파 210타를 적어내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안선미(22·하이마트)와 이일희(21·동아회원권)가 경쟁을 벌였지만 1타가 모자라 공동 2위(5언더파 211타)에 그쳤다.

지난 시즌 6승을 올리며 최고의 한해를 보

였던 서희경은 시즌 세 번째 대회만에 우승컵을 차지하며 시즌 상금 1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단독 선두 장수화(20·슈페리어)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를 맞은 서희경은 전반에만 3타를 줄이며 단번에 1위로 올라섰다.

서희경은 12번홀과 13번홀(이상 4파)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승기를 잡았고 18번홀 그린에서 8m를 낚기고 두차례 퍼트로 골을 잡아내 동료 선수들에게 맥주 세례를 받았다.

조청선수로 출전한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마지막날 1언더파 71타를 쳐 합계 7오버파 223타로 공동 36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17일 롯데스카이 제주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MBC 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한 서희경이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 1위’ 광주 상무

오늘 광양서 전남과 격돌

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무8패만 기록했다. 그것도 2003년 9월7일 첫 원정 대결에서만 1-1로 비겼을 뿐 내리 8연패를 당했다.

광주는 지난 4일 전진에서 부산 아이파크에 짜릿한 3-2 재역전승을 거둬 2007년 8월 15일 이후 28경기(8무20패) 동안 이어져온 원정경기 무승 사슬도 끊었다.

최근 K-리그 세 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쳐 승수 쌓기가 절실했던 전남은 지난 11일 강원FC와 경기(3-3 무승부)에서 2골을 몰아넣은 슈바와 최근 세 경기 연속 도움을 올린 김승현에게 기대를 건다.

“전남 원정 무승 징크스 깐다”

시즌 초반 거침없는 흥보로 프로축구 K-리그 참가 후 처음으로 선두를 경험한 광주 상무가 이제는 전남 드래곤즈와 원정경기 첫 승리를 도전한다.

광주는 18일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전남과 2009 프로축구 K-리그 6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2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5라운드 홈 경기에서 1-0으로 이겨 3연승을 달리며 4승1패로 선두로 올라섰다.

2003년 K-리그 무대에 뛰어든 광주가 중간 순위에서 나마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3연

승도 7년 만에 처음이었다.

올 시즌 K-리그 5경기를 치르면서 3골 2도움을 올린 공격수 김명중과 3점만 내준 골키퍼 김용재 등 선수들이 공·수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줬고, 여기에 6경기(리그컵 대회 포함)를 뛰면서 세 골을 넣은 최성국 등 ‘늦깎이 이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광주는 ‘만년 꼴찌’의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광주는 내친김에 ‘전남 원정 무승 징크스’를 깨어내겠다는 각오다.

전남과 역대 전적에서 2승5무10패로 열세인 광주는 특히 원정경기에서는 9차례 상대

생활 게시판

화촉

▲정재한·우동화씨 장남 승원(서울 도시철도공사)군 서금열(광주일보사 함평 다이너스티CC 상무이사)·송향숙씨 차녀 정윤영=18일(토) 오후 3시 라루체(서울 중구 남산동) 4층(그레이스홀)

▲송영춘(조선일보, 전남일보 지국장)·진삼례씨 장남 한수근 김현구·함충길씨 장녀 윤희영=18일(토) 낮 12시 웨딩의 전당 금호 3층(노블레스홀)

▲박명규·이연경씨 장남 진홍(한국외국어대 기조실)군 최갑희·양은자씨 차녀

승은(KBS)양=18일(토) 오후 1시 여의도 KBS컨벤션웨딩홀.

▲이진(광주일보 서광주지국장)·김순씨 장준·준준·준덕씨 장녀 박인진양=19일(일) 오후 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에메랄드홀)

▲소이길·신선삼씨 장남 은석(금융감독원)군 박기범(삼성주유소 대표)·노준이씨 장녀 서경(경기여자고교 교사)=25일(토) 오후 1시 서울 금융감독원 2층 강당.

▲조영수·장형순씨 차남 대근군 이은상·유성래씨 사녀 현명영=25일(토) 오후 1시 명성예식장 1층 특실.

▲정재준·허행숙씨 장남 혁성(미국 아미커스)군 김정길(김정길내과원장)·최란희씨 삼녀 소원양=26일(일) 낮 12시 30분 상무지구 라마다 프라자 호텔 4층.

부음

▲조정오씨 별세 선택·강택·송·성씨 부친상= 밭인 19일(일)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김상득씨 별세 신혜·신영씨 부친상= 밭인 19일(일) 그린장례식장 7분향소. 062-250-4407.

▲이영님씨 별세 이성기·영렬·정호·연옥·영미씨 모친상= 밭인 19일(일)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10.

▲정인주씨 별세 형남·형승·형숙·형화씨 부친상= 밭인 18일(토) 그린장례식장 12분향소. 062-250-4412.

▲오봉애씨 별세 이춘규·송규·맹규·길순씨 모친상= 밭인 18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훈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끌라 들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완지구

상가임대 및 분양

• 수완최고상업지역 버스정류장 옆

월드프라자(1~5층) 3월말 준공 금은, 안경점, 브랜드 의류, 편의점, 독서실, 약국, 병원, 한의원, 학원, 독서실(이비인후과·임접 확정)

• 메인도로 35×12×6m 버스정류장 옆 5층건물 송원프라자(즉시 입주가능)

식당, 편의점, 한의원, 학원, 독서실

• 토지 중개 및 개발 컨설팅

• 수완 상업지역 최고요지 최저가 매물 다양화보

개발 상담 및 토지증개는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 062) 959-1033, 019-608-3372

현대공인증개사

☎ (062)371-1900, 훈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① 토지 최적지
(전원주택, 창고, 공장부지)
- 국가 산단지 지정지 인근, 5561㎡
(약 1,682평) 관리지역, 현재 고수

율매매가 2억 3천만원

② 전시장·정비공장부지
- 광송간 도로변

- 신촌동·준주지역 대지 337평
평당 200만원

③ 카센타 식당부지
- 광송간 도로변

- 송정동·남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④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 대지 697㎡ (212평) 매매가 2억 5천만원

⑤ 공장 식당 창고 절레식장
- 매월 100만원

⑥ 35미터 도로변 2,780㎡ (약 840평) 매매가 23억

⑦ 상가부지
- 동선동, 남구청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 2층 일반지역 267평
매매가 8억

⑧ 나주·남평 관리지역
- 노양원 공장, 물류